



현명한 낚시꾼과 장사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물고기를 낚시로 잡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낚시꾼이라 하고 물건을 팔기 위해 사려는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손님 오기를 기다려 물건을 팔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장사꾼이라 한다.

낚시꾼은 물고기가 모여들기를 기다리고 장사꾼은 물건을 사려는 고객이 모여들기를 기다린다. 낚시꾼이나 장사꾼이란 말을 들으려면 그 분야에 노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끈이란 말을 듣게 된다. 낚시하러 가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는 사람을 낚시꾼이라 부를 수 없으며 온종일 물건을 팔지 못하는 실적이 없는 사람을 장사꾼이라 할 수 없다.

낚시꾼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낚시와 미끼의 준비를 잘해야 하고 낚시할 장소를 어디서 할 것인가 최적의 장소를 선택해야 하며 고기가 입질을 하면 적시에 낚아채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일정한 낚시터를 정했으면 그곳에 고기들이 모여들도록 떡밥을 주어 고기가 모이게 한다. 현명한 장사꾼은 장사가 잘될 수 있는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고객이 모여들 수 있도록 광고를 하고 광고에 해당하는 경비만큼 고객이 이익을 보게 해서 단골손님을 만든다. 단골손님이 많은 가게의 장사꾼은 돈을 버는 장사보다는 사람을 버는 장사에 우선 한다. 그러므로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되도록 인간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 가게를 찾은 고객이 돈을 보태주는 봉이라 생각하고 이문을 많이 챙기는 상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전이 한산해진다. 이 논리는 시장도 마찬가지다. 어떤 시장이 값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 고객 소비자는 그 시장으로 모여든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많이 모여들게 할 것인가에 낚시꾼은 노련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야 하며 장사꾼은 고객이 모여들게 하는 전략을 세워 꾸준히 추진하여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소매상인 가게의 상인으로부터 사서 쓰게 되는 데 생필품은 생산자-도매상-소매상의 다단계 유통구조에서 물건값에 거품이 많아 붙어 소비자는 값비싼 물건을 사게 되며 상인이 이문을 많이 챙기면

판매값은 더욱 비싸지게 된다. 소비자들은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말미암아 물건값을 비교할 수 있고 상인이 정당한 이문인 운반비 보관비 외에 이문을 많이 챙기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장사꾼은 옛날처럼 물건을 사러 온 고객이 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 유통구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유통인 프로슈머 체제로 변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인 인터넷 쇼핑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장사꾼은 낚시꾼이 어떤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에 따라 낚시 도구를 달리 하듯이 변해가는 유통구조와 소비자들의 취향을 살펴서 고객 유치에 힘 쓰는 장사꾼이 되어야 한다. 옛날 어두웠던 시대에 소비자가 봉이 되어 상인에게 이익을 주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소비자를 위해 봉사하는 장사꾼으로서 전문성을 길러 돈을 버는 장사꾼이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의 시골 오일장 시장은 대부분이 영세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시장이었으며 여기에 장꾼들이 모여들어 거래를 도왔던 최근 재래시장은 직거래 시장이라기보다는 중간소매상 장사꾼들이 모여들어 주축을 이루는 시장이 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호감을 사지 않는 시장이 되고 있다.

수많은 직업 중에서 장사꾼이 된 상인들은 소비자를 돕는 현명한 장사꾼이 되어야 한다. 낚시꾼이 낚시가 잘되는 낚시터를 찾고 낚시를 비롯한 어구를 새롭게 하여 현명한 낚시꾼이 되듯이 장사꾼은 변해가는 유통구조를 파악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사들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팔아 고객의 소비자가 선호하고 찾아오는 장사꾼이 되어야 한다.

경쟁하는 시장들도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여 소비자가 찾아가게 하는 현명한 시장경영을 해야 한다. 소일거리로 낚시꾼이 되고 장사꾼이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물고기를 잘 잡는 낚시꾼과 장사를 잘하는 장사꾼에게서 방법을 배워서 시작해야 할 것이며, 물고기나 고객이 모여들 수 있게 하고 기다리는 현명한 낚시꾼과 장사꾼이 되어야 한다.

칼럼

4·19 혁명을 기억하며

기고

김규식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 선거가 있었다.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후보의 당선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이 공정한 선거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뉴스에서는 사전투표함 봉인지 훼손, 투표소를 감시하는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었다는 내용 등이 보도되었고 국민들은 그러한 보도에 반응하며 공정한 선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는 지를 바라보는 의심이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공정한 선거에 대한 열망과 부정선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그것들이 바깥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건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아닐까 싶다.

마침 총선 이후 9일 뒤에 이러한 사회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들었던 최초의 사건이 64주년을 맞는다. 바로 4·19혁명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첫 승리로 기록되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준 역사적 사건의 시작은 부정선거에 대한 항거에서부터였다.

1960년 3월 15일 제 4대 정·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선거에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선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 반공계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발표 등, 당시의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이승만의 사후에도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 이러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얼마나 열심히 조작했는지 일부 지역에서는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의 득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수를 넘긴 115%를 달성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선거 전부터 정치강패 동원, 민주당 후보 유세 방해 등으로 자유당이 계획한 부정선거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었고 2월 28일 고등학생들이 '독재정치, 부정부패를 물리치자'는 구호를 앞세우며 들고 일어난 대구 학생의거를 비롯하여 3월 15일 선거 당일 광주와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1차 마산의거에서 사망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처참한 몰골로 발견된 것이 도화선이 되어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 도중 습격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항거의 불길은 중고등학생들에서 대학생으로 옮겨갔다.

4월 19일 서울의 대학생들 비롯한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총궐기하여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다. 이승만 정권은 총칼을 앞세운 무력으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했으나, 전국적으로 번진 시위의 불길은 막을 수 없었고, 4월 25일 대학교수 300여명이 이승만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거리 행진을 하기에 이르러, 결국 이승만은 사임 후 하야외로 망명을 떠나게 되고 장면내각이 들어서면서 4.19 혁명은 막을 내린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잔인한 말이지만 실제로 역사가 걸어온 길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 이후 많은 민주주의 운동의 근간이 되었으며, 오늘날 공정한 선거가 의심되는 보도 하나하나에 분노하고 그에 반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독재정권의 탄압에 맞선 영령들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4월 19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의에 항거한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기고

빠르게 번지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경각심을 갖자

정다희 장흥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장



홍보에 이용하는가 하면 해외에 거점을 둔 국내 조직 총판에는 중학생도 있었다고 하니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청소년 불법 도박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도박 사이트나 관련 광고 차단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사이트 안에 IP가 너무 많다 보니 일부를 차단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 도박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학교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중독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와 상담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애초에 도박에 접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온라인 도박이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온라인 도박 광고 사이트를 보면 '안전하다'는 문구가 눈에 띄고 까다로운 인증도 필요하지 않아 쉽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부분은 "친구들이나 형들이 도박을 다 하고 있어 재밌어 보여서..." "돈이 없던 친구들도 갑자기 오토바이도 사고 비싼 옷 같은 것을 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사이트에 접하면서 통상적인 온라인 게임과 다르지 않다는 편입감에 사로잡혀 빠져들게 된다.

도박 빠진 청소년들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학교폭력과 마약 배달 등 2차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온라인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1년 사이 3배나 늘었다고 한다. 또한 도박 조직은 청소년들을 고용해 도박 사이트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시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